



## 기독교 세계관과 선교

성인경

날이 갈수록 선교에 있어서 세계관의 중요성이 높아가는 이 때에, 설악산 기슭 라브리 공동체에서 국제복음선교회(WEM) 제1차세계선교대회<sup>1)</sup>를 섬기게 되고, 더구나 부족한 제가 '기독교 세계관과 선교(Christian World-view and Mission)'라는 주제 강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한 제 능력과 시간의 한계 때문에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 안의 세계관적인 문제(問題) 두 가지를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는 교회 밖의 세계관적인 위기(危機) 두 가지를 밝혀보고, 그 후에 앞에서 분석된 문제와 밝혀진 위기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인 대안(代案)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 교회 안의 두 가지 세계관적인 문제(問題)

첫째, 거짓 회심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동유럽에서 보내온 다음과 같은 선교편지의 한 마디는 저에게 거짓 회심자의 문제를 깨우쳐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리더로 일하던 사람이 은행 업무에 부정을 저지르고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으니 기도해주세요." 거짓 회심 혹은 회개 없는 기독교인 양산(量産)은 동유럽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세대에 걸쳐 모든 나라에 있는 현상입니다. 단지 가치관의 변화와 회심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세례 주고 직분 맡기고 지도자를 만들었다가 생긴 문제입니다.

저는 양양에 내려온 이후에 설악산 도사들의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직 안수 집사였다는 도사도 만났습니다. 그분은 "왜 교회를 떠났느냐?"는 제 질문에, "교회에서는 종교적 습관만 가르쳐주었지 진리를 깨우쳐 주지 않아서 떠났다."고 당당하게 말하기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분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헌금 잘 내고 봉사 잘 하니까 집사가 됐지만 하나님도 못 만났고 나의 고민도 해결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전 인격적인 회심이 없이 고위직분자까지 된 거짓 회심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한 둘이겠습니까?

제가 일하고 있는 라브리(L'Abri)에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나 고등학교나 대학에 들어가서 머리가 굵어지면서 신앙을 저버린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한 대학생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영적 체험도 많이 한 사람이었으나 지난 몇 년 동안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아 계시다는 것을 설명할 수도 없어서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청년은 그나마도 희망이 있는 정직한 청년인데, 한 때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적은 있으나 기독교를 세계관적으로 정리한 바도 없고 삶의 변화도 크게 없었기 때문에, 몇 달간의 양육을 받고 난 후에 스스로 신앙을 되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회심자”란, 김선일의 정의를 빌리면, “새로운 생활양식을 가진 사람”<sup>2)</sup>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지식과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이거나 가지려고 노력하는 회개한 사람을 말합니다. 고든 스미스(Gordon Smith)는 기독교적 회심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요소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신념 혹은 지적 요소와 관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심은 단순히 경험이나 느낌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 마음의 갱신을 요구한다. 세상을 이해하는 가치관의 급진적 전환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과 역사를 조명하는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sup>3)</sup> 성경에서 회심이란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은 ‘회개(metaneo)’인데, 이 말은 본래 ‘메타, meta’와 ‘누스, nous’의 합성어로서 ‘마음이나 지성을 바꾼다.’는 말로부터 파생된 말입니다.<sup>4)</sup>

전도자들이라면 누구나 선교의 열매를 빨리 얻고 싶은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하듯 얼렁뚱땅 쉽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거나 “따지지 말고 믿으라.”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을 하고픈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은 반 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나 성장주의 혹은 물량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선교를 망치는 첩경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회심자들을 아무리 많이 모아 놓아도 결국 그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진정으로 회개하기까지는 교회의 문제아들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회심의 본질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며 그것은 자기 세계관을 뒤집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갖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라.” “생활양식을 바꾸라.”고 말을 해도 잘 바꾸지 않는 판에, “덮어놓고 믿으라.” “일단 믿어 보라.”고 전도한다면 처음부터 거짓 회심자들을 불러 모으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낙심자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문으로는 거짓 회심자들이 들어오고 뒷문으로는 몰래 빠져 나가는 도망자들, 변절자들, 낙심자들이 많다면, 그런 교회는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유럽에서 일하시는 한 선교사는 “한 명을 전도해 오면 두 명이 도망가는 것이 현실이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터키에서 일하는 한 선교사님은 “몇 달 전까지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꽉 찼던 한 교회는 선교사의 실언 한 마디로 반 이상이 무더기로 떠나가 버렸다.”고 탄식했습니다. 외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 교단 보고에 의하면, “요즘은 타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보다 기독교에서 타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나 선교지는 어떻습니까?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된 이유는 어른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나 잘못된 영성에 신물이 났거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공동체 운영의 부조리 때문입니다. 1960-70년대에 17세에서 30세까지 젊은이들의 80%를 잃어버린 영국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알파코스]를 만든 검블(Nicky Gumbel)은 그 때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남긴 말을 두 가지로 요약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하지 말고 보여 달라, 둘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달라.” [알파코스]가 그 두 가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날의 교회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날 선교 현장과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말로만 하고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통을 사랑하는 교회를 가면 낯선 사람들을 반겨주기는 고사하고 “누구냐?”고 인사 하는 사람도 잘 없고, 새로 생긴 작은 교회를 가면 “왜 왔을까?”하며 의심받기 일쑤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한 선교사님은 전도할 사람을 며칠 동안 찾아다니다가 겨우 한 노파를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그 노파가 “예수를 믿을 테니까 먹을 것을 사 달라. 나는 춥고 배고프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못 들은 채하고 도망을 쳐 버렸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선교사님은 그 날 밤에 그 노파가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랑을 말로 하기는 쉬워도 사랑을 보여주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달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은사운동이나 성령운동이 유일한 대담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운동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설득과 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서양교회의 약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분석이 있습니다. 1)교회사 학자(教會史學者)인 놀(Mark Noll)은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문화 세계로부터 소외되는 것 자체를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이다.”고 했고, 2)20세기 영국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로이드존스(Martin Lloyd-Jones)는 “거룩하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성도들이 지성을 위협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했고, 3)쉐퍼(Francis A. Schaeffer)는 “기독교의 초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성을 양보한 결과, 상대주의 세계관에 대항할 만한 기독교 지성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sup>5)</sup>

서양교회가 지난날의 반지성적 선교운동을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대 문화를 무조건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거나, 신앙의 근거를 확고하게 세우기 위한 학문적 탐구마저도 필요 없다고 말하거나, “뜻(지성, minds)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sup>6)</sup>는 가르침을 무시하고 있다면 정말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맥그라스(Alister McGrath)가 “복음주의의 문제는 분리주의이다.”<sup>7)</sup>라고 지적한 바로 그 위기인데, 지성과 체험을 분리하므로 지성(知性)에 세례를 주어 그리스도를 겸손히 섬기는 도구로 만들기보다 ‘지적 자살(intellectual suicide)’을 방치하므로, 결국 비기독교 사상의 번창과 반 지성적 선교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 교회 밖의 두 가지 세계관적인 위기(危機)

첫째, 거짓 신념과 무용지식으로 머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게이츠(Bill Gates)는 돈만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 현대교육의 문제를 누구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는 무용지물이다. 내가 말하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는 말은 단순히 학교가 붕괴되었다거나 결함이 있다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을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단순히 체제 내의 사고(事故)나 결점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바로 체제 그 자체이다.”<sup>8)</sup>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마찬가지인데, 오늘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중에 무익(無益)하거나 무용(無用)한 것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미래학자인 토플러(Alvin Toffler)도 “우리가 넘쳐나는 정보사회에 살고 있지만 쓸모없는 ‘무용지식(the obsoledge, 無用知識)’도 거기에 비례하여 많아진다.”<sup>9)</sup>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프린스턴대학교의 기독교인 교수인 부스

노(Robert Wuthnow)는 현대인의 지식 구조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 지성의 심오한 구조들은 대개가 비 기독교인이나 반 기독교인의 활동으로 형성된 것이다. 특히 마르크스(Marx), 베버(Weber), 뒤르켄(Durheim), 프로이트(Freud) 같은 19세기 이론가들은 현대 대학교의 지성적 전통을 수립해 놓았다. 좋은 싫든 그들의 유산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진보시키는 데 패러다임을 제공해 준다.”<sup>10)</sup>

이렇게 많은 학교가 지식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쉐퍼(Francis A. Schaeffer)는 세상의 이런 학문 풍토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영혼을 다음과 같이 걱정했습니다. “이러한 학교와 사회에서 대학생으로서 4년 또는 그 이상을 지내면서도 주변에 있는 세계관에 의해 침투를 당하지 않기로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찾아 학교에 다니다가 겨우 ‘조약돌 한 주먹’만 얻어 가지고 학교를 떠난다.”<sup>11)</sup> 조약돌 한 줍을 주우려다가 영혼을 잃기도 합니다. 어거스티누스(Augustinus)가 그랬습니다. “나는 어릴 때 그리스 신화를 배우며 종종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가련하고 불쌍한 내 영혼에 대해서는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 영혼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영적으로 죽어갔다.”<sup>12)</sup>

여러분의 지식과 영혼은 건재합니까? 멀쩡하던 청소년들이 갑자기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유도 가만히 알고 보면 가치관이 빈약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흘러가는 강물 위에 떠 있는 통나무 다리처럼, 평소에는 매우 아름답고 튼튼해 보이지만, 홍수가 나면 힘없이 떠내려 가 버리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고 뜨겁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튼튼한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사상 체계가 없을 때에는 백해무익(百害無益)의 무용지식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은 물론이고 온갖 도덕적 죄악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는 것은 영적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sup>13)</sup> 당신은 거짓신념과 무용지식으로 머리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이단 보다 더 무서운 이념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단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대정신(zeitgeist)이다.”<sup>14)</sup>는 말이 있듯이, 현대 선교에 있어서 이단보다도 더 무서운 시대정신은 새삼스럽게도 이데올로기(ideology)입니다. ‘이데올로기’란 ‘절대화된 이상’(an ideal made absolute)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이상을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입니다.<sup>15)</sup> 우리는 냉전시대가 마무리 되면서 탈 이데올로기 혹은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를 얻은 줄로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아직도 이념 갈등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데올로기 과잉이 초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정치,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사학법개정, FDA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북핵문제 등을 푸는데 가장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이데올로기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이제는 양극화 현상이 정파간이나 국민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한미(韓美)간 혹은 한일(韓日)간의 최대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세계관적인 위기라면 위기입니다. 양극화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그가 읽고 “피가 끓는 기분을 느꼈다”고 하는 [해방전후사의 인식]<sup>16)</sup>이란 책인데, 그것은 주로 좌파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민족주의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그것은 민족정신, 통일해방, 민중혁명 등이 역사의 열쇠라고 말하며 사회 구조와 체제를 급진적으로

바꾸자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최근에 출판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sup>17)</sup>은 주로 우파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주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상황, 경제논리, 민주국가 등이 역사의 열쇠라고 말하며 경제성장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혁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진보 진영과 국가주의를 주장하는 보수 진영의 이념갈등은 이제 도를 넘어 빈부 갈등이나 정치 갈등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르망(Guy Sorman)도 “한국에는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이데올로기적 양극화 현상이 지나치다.”<sup>18)</sup>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어김없이 민족주의가 최악의 이데올로기이며 종교입니다. 정치 사상가인 김한식은 동남아 민족주의의 특징을 잘 분석해 주었습니다. “동남아의 민족주의는 처음부터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서구 이데올로기적 민족주의의 도전에 항쟁을 하면서 나타났고, 중국이 국제무대의 강자로 등장하는 것을 보고 중국 공산주의를 민족주의 운동에 이용하면서 나타났다.”<sup>19)</sup> 그는 선교 전략에도 민족주의를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동남아 지역 선교에 있어서 민족주의와의 공존을 어떻게 도모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이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민족주의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 종교와의 갈등을 어떻게 이겨 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교전략이다.”<sup>20)</sup>

서양에서는 자유 혹은 자유주의(liberalism)<sup>21)</sup>가 한 때 이데올로기였는데, 그것을 잘못 다룬 것이 선교에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자유주의는 15, 16세기에 영국의 정치제도 개혁을 이끌었고 18세기에는 미국의 독립선언을 낳았으나 프랑스 혁명에서는 단두대에서 피비린내를 뿌렸으며, 19세기 말에는 독일에서 고등비평(the higher criticism) 사상을 잉태하여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붕괴시키더니, 급기야는 20세기 중반에 히틀러, 나찌, 제2차세계대전과 같은 괴물을 낳았습니다. 지금은 자유주의가 서양이나 미국 교회를 초토화 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주의(relativism),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 탈현대주의(postmodernism), 냉소주의(cynicism) 등으로 변신하여 서양 사회 구석구석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서양 교회를 비게 만든 공산주의, 진화론, 인본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제단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 21세기에는 그 보다 더 흉악하고 무서운 이데올로기의 제단에 무릎을 꿇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파괴력을 익히 알고 있는 민족주의, 국가주의, 자유주의도 언제든 재기될 여지가 있고, 그보다 몇 배나 더 흉악한 과학주의, 냉소주의, 자연주의와 같은 이미 알려진 이념들도 부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 새것이 뭐 있겠나?”하며 방심하거나 자만하고 있는 사이에 성도들의 영혼들이 사냥감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데올로기의 과잉과 이단보다 무서운 거짓 신념들을 방치한다면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 기독교 세계관적인 두 가지 대안(代案)

여러분은 “진리는 대결을 동반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쉐퍼(Francis A. Schaeffer)는 그 말을 하면서, 교회 안팎의 이런 세계관적인 문제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이 크게 세 가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 무대결(no confrontation), 둘째는 무조건 싸우는 사랑이 없는 대결(confrontation without love), 셋째는 사랑으로 대결하는 것(confrontation with love)입니다.

저도 종종 첫번째, 두번째 방법에 빠지지만, 세번째 '사랑의 대결'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대안, 즉 하나는 기독교를 이론화하는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 속에서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째, 기독교 진리를 우리 시대에 맞게 이론화 하는 작업입니다. 지금은 영계(靈界)가 혼탁하고 이단이 많이 설치고, 거짓 지식과 무용지식만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난무하며, "진리에는 귀를 막으면서도 거짓 스승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 시대"<sup>22)</sup>입니다. 그런데도 현대 교회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교리(敎理)와 진리(眞理)마저도 폐기 혹은 해체하고 있으며, 교리 교육이나 변증적인 설교가 실종 직전에 와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에서는 토플러(Toffler)가 잘 지적했듯이 "경제, 문화, 종교, 정치, 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빠르게 지식의 대량 재 조직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sup>23)</sup>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기독교 이론을 복구하고 기독교 지식을 재 조직화 하여 튼튼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론화 작업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긴급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탁하신 것이 뭘지 아세요? 그것은 제자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sup>24)</sup> 여기의 하나가 되는 것은 목욕탕에 같이 잤다 오거나 밥 한 그릇을 같이 먹는다고 되는 그런 물리적이거나 감정적인 하나가 아니라, 가치관이 하나 되고 정신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받는 제자들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길이 남기고 교회의 교리적 통일성을 위해 [복음서]들을 저술했고, 그것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터를 닦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부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피비린내가 나는 박해와 거짓 선생들과 이데올로기들의 출현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는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prepare your minds for action)." (베드로전서 1:8)라는 것과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to stimulate you to wholesome thinking) 말씀을 기억하고 거짓 사상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베드로후서 3:1,2)<sup>25)</sup> 성경적 사상으로 무장하지 않고 사탄을 이길 재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도구인 비성경적인 사상과 이데올로기들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성경으로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본래 어부 출신에다가 다혈질적이고 비지성적인 사람으로 알려진 사도 베드로가 기독교 세계관을 준비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위대한 선교사인 바울 사도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개척한 교회들이 이단과 거짓 지식과 이데올로기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이론적인 작업, 즉 기독교 교리 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쓴 13-14권이나 되는 바울 서신들이 그것입니다.<sup>26)</sup> 특히 그의 [로마서]는 기독교 진리 체계의 진수를 담은 책입니다. [로마서]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제국의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대항할만한 이념이나 진리 체계가 전무하던 시대에, 기독교는 구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일상적인 삶의 진리 체계로서 혹은 온전한 세계관으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리요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한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최고의 교리서(敎理書)이고 기독교 세계관 교과서입니다.

사람들의 부탁도 영적 노하우가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키워달라는 부탁입니다. 제가 만나 본 중국 지하신학교에 모인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공산주의를 버린 중국 청년들의 가슴은 지금 이념적으로 공백 상태입니다. 만약 기독교 세계관이 그 자리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물질주의나 쾌락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천기(天氣)를 분별하듯이 영계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키워주십시오."라고 했

습니다. 태국교회 한 지도자는 “우리들에게 물소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물소 키우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학생은 “제도화된 우리나라 기독교가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맛볼 수 있는 새로운 기독교 패러다임입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나무의 가치를 무성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무의 뿌리와 기둥을 튼튼하게 하는 지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키우고 백성을 성숙하게 양육할 수 있는 이론화 작업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1)성경을 편식하지 말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 2)설교의 주제를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다루는 것, 3)세계관 공부 모임이나 토론 그룹을 만드는 것, 4)좋은 기독교 세계관 책을 읽는 것<sup>27)</sup>, 5)자기 전공이나 관심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 하는 것, 6)기독교세계관 연구 코스를 개설하거나 기독교세계관 학교나 연구소에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하거나<sup>28)</sup> 7)우리 사회에 죄가 가장 많은 곳이나 학교나 치열한 세계관 전쟁터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스파이(God’s spy)’로 파견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학계에서 히버트(Paul Hiebert)나 뉴비긴(Leslie Newbigin), 윈터(Ralph Winter)가 그런 일을 잘 해 주었습니다.<sup>29)</sup>

둘째, 생활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이 없는 성령운동이 교회 부흥의 독약이듯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기독교 세계관도 독약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좋은 결과만 남지 않았습니다. 1)교회 안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의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고, 2)어떤 교회나 선교단체는 쓰라린 분열의 아픔을 맛보기도 했는데 그 원인으로 주목된 것이 세계관이었으며, 3)세계관 공부가 마치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의 전용물인 것처럼 비쳐지기도 했고, 4)어설픈 세계관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는 “세계관을 공부해도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강력한 비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부작용은 네 번째였습니다. 그 결과는 그야말로 참담했는데, 세계관 공부가 생활 변화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소문이 돌면서,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세계관 공부가 시들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으로 지적된 것 중에는 1)기독교세계관 운동의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2)1990년대 말부터 풍미하기 시작한 탈현대주의(postmodernism)의 영향이 크다는 말도 있고, 3)한국교회에 불어온 성령운동이 지적 자살(intellectual suicide)을 부추겼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4)세계관을 머리로만 배웠지 생활 속에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이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라브리(L'Abri)는 과거의 부작용을 교훈으로 삼아, 일상생활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라브리는 설립 초기부터 제1차적인 목적은 전도가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며 그분의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매일매일, 순간순간 믿음으로 선교(Faith Mission)했던 영적 거인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기도하고 일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세계관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인도합니다. 가끔 도서관 한쪽 구석에서 혹은 하루 종일 삼짇을 하던 학생들이 “이거다!” 혹은 “휴레카(찾았다!)”라고 외칠 때, 그것은 라브리에서 가장 신나는 “소음” 중에 하나입니다.

다. 진리가 또 한 사람을 자유케 했기 때문입니다.<sup>30)</sup>

제 아내 박경옥은 종종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할 수 있는 최고 학교는 공동체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세계관 공부는 분위기가 중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며, 삶의 현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합니다. 제 아내는 몇 가지 예를 들어 줍니다. “환경운동을 하러 밖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내 주위, 내 집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는가? 성격에 따라 꼼꼼하게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 청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사용을 허락하신 책, 옷, 의자, 책상, 전기, 물 모두 청지기의 자세로 아끼고 관리하여야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보잘 것 없는 일, 하기 싫은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기도할 때와 같은 자세로 하여야 한다. 말씀대로 살기로 뜨겁게 결심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편안을 찾고 싶을 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내게 맡겨 주신 세상을 내가 누리는 만큼 돌보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sup>31)</sup>

위대한 전도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인도를 위해 평생을 바친 영국인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 선교사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적이고 마술적이며, 하물며 밀교적(密教的)인 성격이 강한 인도의 탄트라(tantra)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기를 꺾기 위해 반지성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요가, 명상, 모호한 언어사용, 진리를 얻는 방법으로서의 이성을 파괴하는 방법이나 급성장을 요구하는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모든 영역에 대해 기독교를 초월적이면서도 동시에 논리적인 진리로 기독교 세계관을 균형 있게 가르쳤습니다. 그의 사역이 처음에는 미미했다고 생각했으나 몇 백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그의 선교전략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 라브리에 공부하러 왔던 한 인도 목사의 부탁입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를 보내주시려거든 케리 같은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를 “아침의 고요한 나라(the land of morning calm)”라고 읊었던 시인 타고르(Tagore, Sir Rabindranath(1861-1941)는 인도의 자람이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케리의 선교 열매 중에 하나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sup>32)</sup> 사실은 케리가 번역해 준 벵갈어 성경을 통해, 타고르가 기독교 세계관과 자국 문화의 소중함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드(S. K. De)가 케리의 업적을 평가한 대목입니다. “정착되지 못한 방언이라는 열악한 조건에서 벵갈어를 구어(口語)의 규칙적이고 영속적인 속성을 지닌 언어로 끌어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케리와 그의 선교 동역자들이었다.”<sup>33)</sup>

기독교 세계관은 현대 선교의 각종 문제와 위기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의 세계관적인 문제(問題)와 교회 밖의 세계관적인 위기(危機)에 대한 중요한 대안(代案)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익혀서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 1) WEM은 1980년대 중반에 런던한인교회의 김복경 목사와 김한식 장로 등에 의해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선교사를 위한 정기 기도는 물론이고 재정 및 행정 관리와 노후까지 책임지는 선교단체이다. 저와 WEM과의 관계는 영국에서는 정관 초안과 설립을 도운 바 있고(1983-1987), 서울에서는 초대간사로 1년간 행정업무를 도운 적이 있는데(1988-1989), 그 경험은 후에 라브리공동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2006년 10월 2-4일에 양양 라브리에서 WEM 최초의 선교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국내외에서 50여 명이 모였다.
- 2) 김선일, '회심, 그 급진성과 점진성', 라브리세계관학교 2006 교안.
- 3) 김선일, '회심, 그 급진성과 점진성', 라브리세계관학교 2006 교안. 고든 스미스가 지적하는 나머지 여섯 가지 회심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2)회개(참회적 요소): 회개란 단순히 후회감이나 자책감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는 죄 된 생활양식을 급진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은총을 필요로 하는 죄 된 존재임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겸손 가운데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3)신뢰와 용서의 확산(정서적, 감정적 요소): 진정한 회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선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뜨겁게" 된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공격에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확고한 섭리를 발견하여,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이 용서되고 있음을 실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4)헌신, 충성, 그리고 순종 (의지적 요소): 회심은 근본적으로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으로 표현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부합되는 삶의 질로 바꾸는 것이며,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열심과 자원을 기꺼이 투자하는 삶이다. 5)세례(성례전적 요소): 세례는 기독교 공동체에 입회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다. 믿음의 우선성과 아울러 성례전적 행위의 통합적 위치도 매우 중요하다. 형식적, 상징적 의식은 때로 우리의 내적 상태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며 공증해준다. 세례와 믿음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기 때문이다. 6)성령의 은사(은사적 요소):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기독교적 회심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성령의 은사는 단지 초기 결신과 중생에 있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회심을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성령께서는 이 과정 전체를 주관하시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거듭남 보다 더욱 중요한 개념은 성령을 받았느냐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와 회심은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으며, 성령의 은사를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을 이끌어 간다. 7)신앙 공동체에의 참여(집단적 요소):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참여하는 것, 즉 하나님의 구속사에 포함되는 것이다. 회심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편입시키는 과정이며, 이는 구체적인 기독교 공동체에 참여함으로 가시화된다.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에 헌신하기까지 온전한 회심을 말할 수 없다.
- 4) 밀러(Darrow Miller)는 '회개 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 한 바 실제의 본질, 인간의 본질과 그의 반역, 역사 속의 하나님의 목적 등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물들을 보는 방식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나 실제에 대한 그분의 정의 그리고 우리의 상태에 대한 그분의 진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Darrow Miller, '내 온 지성을 다하여', cf. 라브리편지 제27호.
- 5) Mark A. Noll, 복음주의의 지성의 스캔들, 이승학역, 엠마오, p.179.
- 6)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누가복음 10:27,28)
- 7) Alister McGrath,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한국장로교출판사, p.45.
- 8) Alvin & Heidi Toffler,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 p.526.
- 9) Alvin & Heidi Toffler, 앞의책, p.168. '무용지식(the obsolete)'이란 말은 토플러 부부가 만든 말로서 'obsolete(무용한)'이란 말과 'knowledge(지식)'의 합성어이다. 토플러 부부는 여기에서 오늘날 테이타와 정보, 지식이 우리 주변에서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의 많은 부분이 점점 더 진실에서 멀어지고 있고, 지식의 변화가 빨라질수록 무용지식으로 바뀌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고 말한다.
- 10) Mark A. Noll, 앞의책, p.31.
- 11) 프란시스 웨퍼, 프란시스웨퍼전집(생명의 말씀사), pp.550-552.
- 12) St. Augustinus, [고백록]에서.
- 13)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로마서 1:21-24)
- 14) 머레이(Andrew Murray, 1828-1917)가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출처는 그의 선교서신인 것 밖에는 잘 모르겠다, 머레이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후손으로 존 머레이(John Murray)의 동생이며, 젊어서는 남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했고 늙어서는 경건서적과 선교사들을 위한 다수의 선교서신을 남겼다.
- 15) 리트케르크는 이데올로기(Ideology)라는 말속에는 세 가지 차원, 즉 이데아(idea-관념, 생각), 이상(ideal), 이데올로기(ideology)가 있다고 한다. 첫째, '이데아'(idea)라는 말은 원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의 철학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는 보이는 세계를 그림자라 여기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선한 것들로 건설되는 이데아의 세계라 했다. 둘째, 이 이데아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적용시킬 때 그것은 이상(ideal)이 된다. 이데아는 실제 아무런 능력도 없으며 그것은 단지 관념일 뿐이다. 그러나 당신이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 이데아는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라고 말하자마자 당신의 이

- 데어를 이상(ideal)으로 만들게 된다고 한다. 셋째, '이데올로기'(Ideology)란 '절대화된 이상'(an ideal made absolute)을 말한다. 곧 자신의 이상을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상적인 실제 목표를 진리와 혼돈하여 그것을 최종적인 목표와 절대적인 기준으로 가장하는 모든 사상체계의 이념이며 총칭이다. cf. 빔 리트케르트(Wim Rietkerk), '기독교는 과연 이데올로기인가?', 성인경 편, 기독교 신앙의 실체와 매력을 찾아서, (일지각), pp.141-145.
- 16) 송건호, 백기완, 김학준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 17) 박지향, 김철, 김일영 이영훈 엮음,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 18) 소르망(Guy Sorman)은 세계적인 문명비평가이며 철학자이자 프랑스 파리 제1대학의 교수로서 우리나라를 여러 차례 방문한 바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에서 경제성장의 침체원인에 대한 학술보고를 올리면서 이념의 양극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요지의 보고를 드린 바가 있다.
  - 19) 김한식, 동남아 선교전략, 기독교문서선교회, pp.181-185. 김한식은 동남아 민족주의는 단순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 배후에 종교적 이념이나 세계관이 깊이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종교 이데올로기라고 잘 분석했다. 그는 또한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는 거의 예외가 없이 이데올로기를 국가독립을 위해서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용하지만,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가 대립할 때는 언제나 이데올로기보다 민족주의를 택했다."고 지적한다.(cf. 같은 책 pp.415, 554-556)
  - 20) 김한식, 앞의책, pp.168-169.
  - 21) 자유주의는 인간의 사상적, 정치적 자유와 그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정치, 경제, 종교 사상으로서, 오늘날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인 시장자본주의, 종교적인 종교다원주의의 근거가 되는 철학이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제2차세계대전 후에 미국과 유럽에서 빈부격차의 해소방안으로 도입된 사회주의적 제도, 즉 분배중시, 민중혁명, 제도혁신 등을 최소화하고 자유주의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 22) 디모데후서 4:3,4.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 23) Alvin & Heidi Toffler, 앞의 책, pp.171, 220. 토플러 부부는 지식의 변화가 빨라질수록 무용지식으로 바뀌는 속도 역시 빨라지기 때문에 한 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경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지식을 갱신하지 않는 한 직장 생활을 통해 쌓은 경력의 가치도 줄어들고 오랫동안 피땀 흘려 쌓은 지식도 무가치해 진다고 지적한다.
  - 24)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한복음 17:11-23)
  - 25) 여기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군장 벨트를 하나 차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무장 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마음을 일깨운다.'는 말씀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녹슬기 쉬운 우리의 생각을 순수하고 분명하게 가지도록 자극 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생각이 세속 사상으로 녹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기억"하는 것이 최고이다. 여기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묵혀있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명령을 되새기고 묵상하라'는 말이다. "이것을 알지니"라는 말씀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헛소리들이 주로 어떤 것인지 먼저 알고 있으라.'는 말이다. 지식이 순수성을 유지하고 녹슬지 않으려면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상을 미리 파악하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라는 것이다.
  - 26) 바울 사도는 기독교를 이론화한 사람으로서 세계관을 의미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살펴봐도 "그리스도의 마음(minds)을 품어라"(빌립보서 2:5), "십자가의 도(message),"(고린도전서 1:18-25),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the word of truth, the gospel of your salvation)"(에베소서 1:13) 등이 있다. 그 밖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기독교 세계관은 1)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이며, 2)시대정신을 본받지 않는 능력이며, 3)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삶의 가치관이다. 그리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고린도후서 10:4-6)는 말씀에 의하면, 기독교 세계관은 1)성경의 무기가 기초가 되어, 2)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짓 이념들을 비판해야 하며, 3)비 기독교인들이 발견한 진리라고 하더라도 진리이면 수용하고, 4) 모든 지식을 통합하여 그리스에게 순종시켜야 함을 가르친다.
  - 27) 양승헌, 기독교적 세계관, CUP; 안점식, 영적 전쟁과 기독교세계관, JOY; 성인경, 진리는 살아있다, 예영;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IVP; C. S. Lewis,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 홍성사; Francis Schaeffer, How Should We Then Live?,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사; James Sire, The Universe Next Door. 현대사상과 기독교, IVP; Randal Macaulay & Jerram Barrs, Being Human., 인간, 하나님의 형상, IVP.
  - 28) 국내외에 한국인들이 중심이 되어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하는 곳도 많다. 대표적으로 한국에는 기독교학문연구소, 기독교

학술동역회가 있으며, 캐나다 밴쿠버에 DEW(기독교세계관대학원)이 있다. 라브리는 1955년 설립초기부터 기독교 세계관을 폭넓게 가르쳐왔고 많은 선교사들과 청년 대학생들이 공부 하고 갔으며, 한국 라브리에도 설립 초기부터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름과 겨울에 기독교세계관학교(SCW, School of Christian Worldview)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웹 사이트를 참고하라. [www.labri.or.kr](http://www.labri.or.kr)

- 29) 히버트(Paul Hiebert)의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 *Missiological Implications of Epistemological Shifts, Anthropological Reflections on Missiological Issues, Cultural Anthropology*. 뉴비긴(Leslie Newbigin)의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 *The Otherside of 1984: Questions to the Churches, Foolishness to the Greeks: The Gospel and Western Culture, The Gospel in a World of Religious Pluralism*. 윈터(Ralph Winter)의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 30) 라브리 선교회(L'Abri Fellowship)를 설립한 프란시스와 이디스 쉐퍼 부부는 다음과 같은 선교사들의 믿음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George Muller), 중국을 너무 사랑하여 중국인 복장을 하고 다니며 전도한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 인도에서 고아들과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에이미 카마이클(Amy Carmichael)이 그들이다. 라브리(L'Abri)는 불어로 '피난처', '대피소'라는 말인데, 사람들이 인생의 비바람을 피하여 잠시 머물다 가는 영적 피난처이며 대피소이다. 김복경의 표현을 따르면 "라브리는 인생 도장이며 각종 종교와 사상의 시장."이며, 칼 헨리의 말을 따르면 "라브리는 현대인을 위한 영적 클리닉"이며, 덕 카이즈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최후의 시험장"이며, 한국 라브리에 왔던 한 학생의 말을 옮기면 "라브리는 영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이다."
- 31) 박경옥, '기독교세계관 공부의 최고 학교', 라브리세계관학교 교안에서.
- 32) Ruth & Vishal Mangalwadi, 윌리엄 케리와 성경의 문명개혁 능력, *예영커뮤니케이션*, pp.123-125.
- 33) 앞의 책, p.108.